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January, February 2011 Edition

성령이 임하시어 한 없이 기쁜 작은 마음들

켄터키의 작은 마을 레드클리프, 성령 첫 경험



체 식구들과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뭉쳐진 그곳 자매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열어 주시고 당신이 그동안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곳 근처의 큰 공동체인 루이스빌 본당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여, 내년에는 루이스빌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성령님께서 켄터키 군인 기지(Fort. Knox)가 있는 레드클리프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

세인트 크리스토퍼 성당에서 12월 2일부터 6일 (목-일) 까지 이루어진 성령안의 삶 세미나는 공동

KSC News는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주소로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보내 주십시오.

KSC News, 130 67th Ave. Ct., Fife, WA98424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레드클리프의 기쁜 마음들

찬미 예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보니 지난 신앙 생활은 의무적이었던군요. 주일엔 성당에 나가고 주님이 정해주신 십계명을 지키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니 한없이 기쁘고 마음이 평화로와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족하고 죄많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도 크신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창재 부제님 이은경 자매님께도 축복과 건강을 주셔서 모든 신앙인들께 성령을 전파하여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누시고 마음에 평화와 기쁘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 노엘라

제가 레드클리프에 거주한지는 2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를 기르느라 성당에 가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도 장성을 했고 직장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후 레드클리프 한인 천주교 소 공동체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 진전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 후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 세미나의 밤이었습니다. 이창재 부제님의 강론은 소박하면서도 열렬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째서 그랬지?" 혹은 "왜 그랬을까?" 했던 의문점들이 풀

렸으며 뿌옇게 흐려져있던 내 마음이 맑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자매님의 아름다운 음악과 강의는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강하고 용기가 많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주님의 힘이었던 것을 이번 성령 세미나로 인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목회장 정 에스더

찬미 예수님!

저를 당신 자녀로 만드시고 이곳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한국 사제님도 없는 우리 공동체를 참 사랑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여 우리 공동체가 가슴으로 만나 일치를 이루어 주님께 찬미 드리며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국 사제님이 안 계시는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품어 주셨듯이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저희 공동체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반 평생 넘게 한국에서만 살아온 저를 언어도 낯설은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합당하게 맡겨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제님과 봉사자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에스더 회장님과 우리 공동체 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 로사리아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답답하던 것이 풀렸습니다.

임 루시아

헤어짐이 아쉬워... 성령과 함께 끝없이 캐나다 오타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의에 이어서 김현철 신부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강의하였고, 홍미자 씨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제로 간증하였다.

둘째날 역시 찬미 성가와 함께 조별 모임을 가졌고 '하느님의 은총'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졌다. 셋째날은 봉사자 두 명과 함께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불꽃모양의 혀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뜨거운 신비를 체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성령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지나감을 아쉬워 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지난 18일부터 한국 순교성인 성당(주임 김현철 신부)에서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열렸다. 40여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KSC의 이창재 부제, 이은경 사무국장, 김금선 씨(토론토 한맘성당), 홍미자 씨(토론토 한맘성당)가 봉사자로서 나흘간의 일정을 이끌었다.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통해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우리를 초대했다는 이창재 부제의 강

적극적으로 참여, 세미나 일정 시간도 정확히 지켜졌다.

본당 교우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성령의 이끄심 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성령 기도회를 창설, 이원경 루가 회장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미사후 성령 기도회 모임을 열고 있다.

2011 세미나 일정

일자	행사	주최	문의
1/17 - 19	Committee of 7 meeting at Tampa	NSC	이 은경 253-223-8775
1/24 - 28	11 차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KSC	이은경 253-223-8775
2/4 - 6	봉사자 피정	남가주 봉사회	고재원 323-731-0100
5/27 - 30	제 12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콜로라도 봉사회	김 안젤라 719-200-5444
6/2 - 5	24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남가주 봉사회	고재원 323-731-0100
8/20 - 21	24 차 성령 쇄신 대회	남가주 봉사회	고재원 323-731-0100

Happy New Year 2011



성령 가족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11 KSC 회장 조후연 신부 드림

KSC 2011 과달루페 성지 순례 복음 선교 회원 모집

일정: 2011년 1월 24일(월) - 28일(금) 4박 5일

집합 시간: 1월 24일(월) 4:30pm, Mexico City 국제공항

회비: \$550 (숙식과 교통비 포함)

출발 시간: 1월 28일(금) 2:00pm 이후, Mexico city 국제공항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이며, 각자 구입.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내 주십시오.

fax 253-663-4407

우편: KSC 커뮤니케이션 센터, 130 67th Ave E, Fife, WA 98424

문이는 이 은경 줄리아 253-223-8775

성명(한글, 영어)		영세명(한글,영어)	
전화, e-mail			성별: 남() 여()
주소			
소속 본당		여권 번호	
항공편, 멕시코 도착 일시		항공편, 멕시코 출발 일시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여기를 누르시면 fax나 우편 사용 없이 Online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